

- (4)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장비들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장비간 충돌 또는 전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- (5)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맞음 재해 발생 범위가 광범위하게 분포될 수 있다.
- (6)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할 경우에는 빈번한 야간작업으로 근로자의 피로도가 누적되거나 콘크리트 양생부족으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.

5. 공사전 계획단계

5.1 동선계획

- (1) 초고층 건축물공사는 대부분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심지의 도로교통상황과 도로의 폭, 육교의 유무 등 도로상태를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한정된 대지공간에서 많은 근로자와 자재가 이동되므로 상호간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현장 내부 동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
- (3) 근로자의 이동통로와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동통로는 구획하여 근로자의 부딪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4) 자재의 반입은 현장에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반입 직후 곧바로 설치하고, 협력업체 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타공정과 간섭되지 않도록 조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는 반입 후 단기간 내에 건립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공정의 특성상 일정기간 동안 자재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선의 적정성 및 타공정과 간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자재 야적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장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고층으로 접근하고 작업장의 수직적 분포로 동시다발적인 공정이 투입되므로, 양중장비의 설치위치, 인양능력, 속도, 존치기간 등의 계획을 정밀히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.